



安弼瀨 보건사회부장관 취임

제26대 보사부장관으로

노태우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일부 내각 개편을 단행, 신임 보건사회부장관에 安弼瀨 전 주택은행 이사장을 임명했다.

신임 安장관(59세)은 1932년 충북 괴산군에서 출생하여 '56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12기)한 후 33사단장, 육군본부 인사운영감 및 참모부장, 6군단장을 거쳐 보안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과 참모를 두루 거친 4성 장군 출신이다.

'87년 육군대장으로 예편한 安장관은 청소년연맹총재, 항군회부회장, 석탄공사사장, 한국주택은행이사장 등으로 재직해 오다가 장관으로 기용된 것이다.

평소 업무추진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신임 安장관은 특히 업무파악 능력이 뛰어나고 독서량이 풍부해 모르는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박식하다는 것이 주위의 이야기다.

안장관은 지난 27일에 있었던 취임식에서,『사회 밑바닥 계층이 바라는 바를 폭넓게 수령,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복지의 균형배분이 현재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고, 보건의료등 국민적 관심을 감안하여 의료혜택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전직원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병 관리 세미나」 개최

국가 성병관리사업의 중간 점검 및 성병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서 6월 27일부터 2박3일간 “성병관리 세미나”가 경주 콩고드 호텔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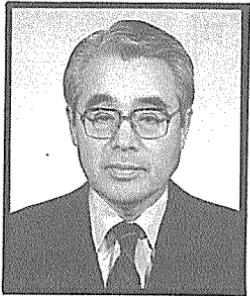
우리 협회 주최, 보건사회부, 세계보건기구의 후원으로 개최될 이번 세미나에는 최진학 한국건강관리협회 부회장, 조병률 보건사회부 보건국장, 김중환 을지병원 피부과장을 비롯한 6명이 좌장으로 참석한다. 김문식 보건사회부 방역과장, 신

광훈 국립보건원 성병과장, 임종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등 6명은 발표자로 참석해 모두 성병관리 실무담당 공무원 48명, 우리 협회 성병검진 실무담당자 40명과 발표자 및 기타 관계자 12명이 참석하게 된다.

이번 세미나의 개최는 향후 성병관리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증가하는 AIDS관리에 도움을 주며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健協 徐丙高 會長 別世

지난 6월 11일 새벽 숙환으로



故 徐丙高 會長

한국건강관리협회 徐丙高 회장이 지난 6월 11일 새벽,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1세.

故 徐丙高 회장은 1921년 서울에서 출생,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거쳐 194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기생충학을 전공한 뒤 서울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생충학 연구·노력과 후학양성, 기생충질환 퇴치를 위해 평생동안 노력해 왔다.

故 徐회장은 1976년 한국기생충박멸협회장을 시작으로 1982년 한국건강관리협회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15년 동안을 기생충 질환 퇴치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을 발전·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동안 故 서회장은, ▲제4대 및 10대 대한기생충학회장(1963~1965, 1973~1975), ▲대한의학협회 학술이사(1975~1979), ▲WHO본부 기생충 자문위원(1979~1988), ▲WHO본부 특별계획 열대의학 연구 활동조정실 한국대표(1983~1985), ▲서울의대 학장(1980~1984), ▲인하의대학장(1986~1990), ▲대한민국 학술원회원(1981~현재) 등을 역임했다.

또한 故 徐丙高 회장은, 정부로부터 탁월한 연구 노력과 교육정신, 국민건강 증진에의 기여도 등을 인정받아, 제2회 중앙문화대상(1976), 대한민국 학술원 저작상(1979), 국민훈장 동백장(1982)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고인의 장례는 지난 6월 13일 가족장으로 염수되었으며, 오전 10시 서교동 자택에서 발인,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학술원에서 영결식을 가진 뒤 천안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미망인 朴亨基 여사와 延琪씨(서울의대 소아과), 延瑄씨(서울의대 생화학교실), 延玩씨(한일병원 소아과) 등 2남1녀가 있다.